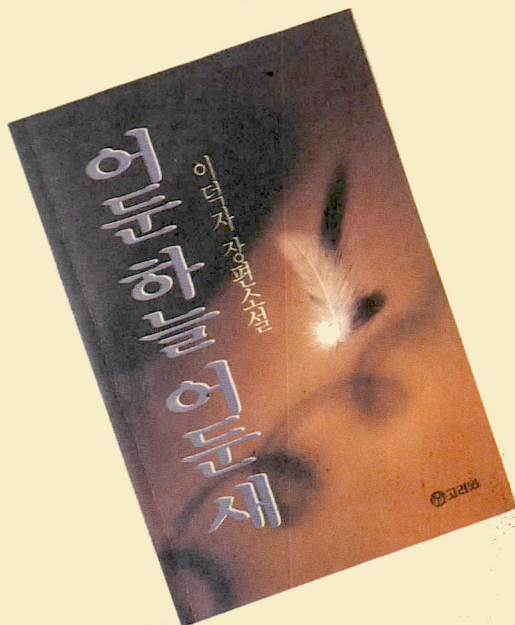


운명 개척해 가는 의지의 여성상 제시



이덕자 씨의 소설에는 특유의 말투가 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든 여자의 도전적이고 거친 '아줌마식' 사설이다. 글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녀만의 말솜씨에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경험으로부터 배어나오는 삶의 냄새가 책장에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의 대표작인 <어둔 하늘 어둔 새>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고려원>에서 재출간된 이 책은 문화방송의 미니시리즈로 더 잘 알려졌다. 그러나 드라마와 실제의 작품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드라마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작가의 개성

과 더욱 적나라한 심리 묘사를 원작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이 씨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다.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줄거리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개 주인공 재서의 고통과 결단의 의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무슨 일이든 근본까지 훑어 생각하고', '똑똑하고 독하여 남자에 맞설 줄 아는 여자가 바로 재서다. 서울에서 대학강사로 일하던 그녀는 남편을 따라 미국에 이민와 온갖 고생을 다 하게된다. 지친 남편이

외도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변덕스런 짐을 꾸리자 그녀는 남편과의 이혼을 택한다. 어린 아들과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재서는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단련된다.

그녀는 여러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다. 그들은 대개 미국이라는 땅에 버려지듯 던져진 이리저리한 처지의 한국여성들이다. 재서는 남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해결사가 될 것을 자원한다.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자 최선을 다한다.

이 소설의 초점은 언제나 여성을 향해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울 줄 아는 여성이며, 그들 간의 끈끈한 동지애다. 그것만이 운명이라는 '어둔하늘로 날아가버린 어둔 새'를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빛인 것이다.

때로는 지나친 우연의 중복과, 소설의 구조 속을 비집고 터져나오는 작자의 단정적인 목소리가 생경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슬픈 이민사(史)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삶과 투쟁하는 여성들의 강인하고 치열한 모습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할 것이다.